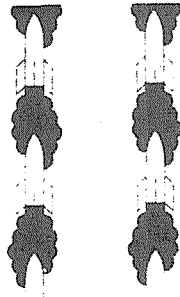


# 電子工業日誌



〈93. 1. 1~1. 28〉

- 1. 1 : 체신부,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전파징수료의 산출근거인 전파대역폭을 당초 30KHz에서 40KHz로 변경 징수액을 최종 확정했다고.
- 1. 4 : 중진공, '93년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지난해보다 725억원이 늘어난 3,870억원이 지원 된다고.
- 1. 5 : 생기원, 중소기업체의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생산기술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현장에 파견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장시험기 및 분석기 등 40종의 각종 실험설비를 갖춘 개방실험실을 설치해 제품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.
- 1. 9 : 상공부,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일정이 지난해 11월 개최된 몬트리올의정서 제4차 가입국회의에서 대폭 강화됨에 따라 CFC 사용량의 조기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, 대체물질 개발의 추진과 대체기술개발 및 보급에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.
- 1. 11 : 체신부, 전자파장해 검정대상 기기에 전기면도기, 모발건조기, 전기문서세단기, 전기믹서, 전기가습기 등 전자기기류 5종을 추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.
- 1. 11 : 정부, 기술개발을 해 놓기도 자금난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가운데 기술개발에 지원되던 1,200억원중 일부를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고.
- 1. 14 : 공진청, 을 한해를 중소기업에 대한 총체적 기술지원의 해

로 정하고 국내기술지도기관을 총동원해 제조공정, 생산방법, 제품검사, 원자재의 선별 및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.

- 1. 16 : 중진공,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력 성장기반이 취약한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강화, 지난해보다 140억원 늘어난 300억원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.
- 1. 21 : 과기처, G<sub>7</sub>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와 관련 선진기술을 조기습득 활용키 위해 정보·전자·에너지를 망라한 신소재 등 총 31개 과제에 19억 8,000만원이 투입될 국제기술협력사업에 국내에서 87명의 과학자가 미국 등 선진 5개국에 파견되며 총 105명의 해외과학자가 국내에 초빙돼 첨단기술을 전수하게 된다고.

- 1. 25 : 정부, 전기용품의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형식승인대상 품목을 세분화, 확대하고 부품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.
- 1. 26 : 중진청,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총 75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자금 가운데 450억원은 연구용 시제품제작용 기계장치 구입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등에 지원하고 270억원은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지원하기로 했다고.
- 1. 28 : 과기처,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보급과 국민과학교육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전용 종합유선방송사(ATV)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.
- 1. 28 : 체신부, 무선통신의 효율적인 감시와 전파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'96년까지 220억원을 투입 전국적인 자동전파감시망을 구축키로 했다고.
- 1. 28 : 과기처, '93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에서 대학의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448억원을 출연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으로 624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하는 등 총 1,072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.
- 1. 28 : 상공부, 최근 광부품, 고주파부품 등 18개분야 56개 과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렉트로 21프로젝트의 대상품목을 확대, 전자산업발전의 관건이 되는 핵심부품 및 소재국산화를 앞당기기로 했다고.